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본 문 창세기 1장 1절, 26-28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17절

할렐루야!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주일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말씀해 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에 집중해야 되기에 영상 없이 말씀만 듣도록 구상했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전해 주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목적’을 위해 마음과 행실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희망으로 삼고 그 목적을 이루려고 갖은 방법을 다 쓰며 삽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목적을 이루는 데 돕고 함께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최고로 좋아하고 귀히 여기며 그를 돕기도 할 것입니다. 아마 자기 목적 외에 다른 것을 돕는다면 별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목적’을 두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그 목적’을 알고 그 일을 해 주는 자, 그 목적을 이루게 해 주는 자를 최고로 좋아하고 사랑하며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게 해 주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육과 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구세주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목적을 이루려 하시는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약하니 전능자만 믿고 구원받고 도움만 받으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 목적만 이루려 합니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며 신앙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를 믿고 사는 자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고 구세주를 믿어 구원받고 천국에 가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과 구세주를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 동안 잘되고 복을 받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같이 자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목적이 있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도와주시고 잘해 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했다고만 믿고 삽니다.

하나님과 구세주를 믿으면서 ‘구원과 천국’만 생각하고, 세상에서 살 동안에 ‘자기 목적을 이룰 것’만 생각하고, ‘어려울 때 도움 받을 것’만 생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약한 인간들을 통해서 무슨 목적을 이루시겠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바를 인간들이 이루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성자 주님으로는 안 봅니다. 그저 철없이 믿고, 믿음으로 인하여 얻으려고만 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가면 또 하나를 말하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아 주고, 길러 주고, 입혀 주고, 먹여 주고, 재워 주고, 집을 지어 주고, 공부를 시켜 주고, 도움을 주고, 의지하게 하고, 크면 결혼을 시켜 주고, 땅을 사 주고, 각종으로 원하는 것을 해 줍니다. 이는 ‘자녀를 향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녀가 이것을 모르고 살면 부모가 자녀를 낳은 보람도, 기른 보람도, 입히고 먹인 보람도, 공부시켜 준 보람도 못 이루고, 그저 자녀에게 해 주기만 하고 아쉬움으로 끝나고 죽고 맙니다.

부모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섬기고, 위하고, 자녀로서

부모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주고, 말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녀를 낳아 주고, 길러 주고, 입혀 주고, 먹여 주고, 도움을 주고, 사랑해 준 ‘목적’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영과 육을 창조하시고 키워 주고, 입혀 주고, 먹여 주고, 도와주고, 지켜 주고, 함께해 주고, 사랑해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 첫째, 인간의 육신이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구세주를 사랑하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고 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고,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며 살듯, 인간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사랑의 대상체로 모시고 살도록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 둘째, 인간의 육신이 세상에서 이같이 살면서 자기 영을 신부로 변화시키어 영과 육의 구원을 이루며 살다가, 육신이 죽은 후에는 그 영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천왕으로도 모시고 섬기며 살고, 하나님과 성자 주님과 성령님을 사랑의 대상체로 섬기며 영원히 사랑하며 살라고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두 번째 목적이며 근본의 목적입니다.

인간이 땅에서 육신으로도, 마음으로도, 영으로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며 그를 돕고 사랑해 주시며 그와 사랑 일체 되어 살아 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서로’ 사랑으로 살아야 영원히 같이 살아도 지루하지 않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만 인간을 사랑하셔도, 혹은 인간만 하나님을 사랑해도 영원히 만족하게 살지 못합니다. ‘서로 사랑’입니다. 그래야 사랑이 이루어지고, 영원히 만족하며 삽니다.

‘하나님은 만족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만족한 사랑을 받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고로 인간이 꼭 그 창조 목적대로 살아야 세상에서도 온전한 만족을 누리며, 그 영도 천국까지 가서 영원히 만족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구세주를 믿고 구원받고 복 받기 위해 믿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좋아하는 격과 같습니다. 고로 하나님은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하시니, 답답해하시고 만족하지 못하십니다. 성령님도 그러하시고, 성자 예수님도 그러하십니다.

이제 성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정말 잘 듣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성자의 말씀>

★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나 성자가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마치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위해 환경과 배경을 만들어 놓고, 도와주고 사랑해 주고 해 줄 것을 다 해 주면서 키운 후에 결혼하여 평생 같이 사랑하며 살려고 하는 목적과 같다.

고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류를 성장시키고 키워 구원역사를 시작하셨다. 그리고 그 시대의 많은 자들 중에서 아담과 하와를 특별히 택하시고, 말씀을 주셨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하면 결혼시켜서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여, 창조주를 사랑하고 섬기며 그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전해 주어 개인·가정·민족·세계 단위로 번성하게 하려 하셨다. 고로 이 세상을 ‘사랑의 이상 세계’로 만들고, 육신이 죽은 후에 그 영이 천국에 와서 영원히 살게 하려 하셨다.

하지만 천사장 루시엘은 ‘세상 창조’와 ‘인간 창조’를 싫어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다가 지상으로 쫓겨났다. 루시엘은 지상에서도 돌이키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다. 아담과 하와는 루시엘의 말을 듣고

사랑의 뭉에 넘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고 이성 사랑으로 타락되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과의 사랑이 끊어져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중급으로 떨어졌고, 그들의 후손들은 구약 4000년 동안 형벌을 받게 되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타락하게 한 루시퍼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성령님과 나 성자와 함께 그 후손들에게 구약의 뜻을 펴 나갔다. 선지자들과 중심인물들과 사사들을 보내어 종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형벌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뜻을 이루게 하셨다. 이렇게 4000년 동안 구약역사를 펴 왔다.

그러다가 4000년 구약 형벌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은 하늘의 독생자나 성자를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땅의 나사렛 예수를 성령으로 나게 하셨다. 나 성자는 그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를 메시아로 삼고 일체 되었다. 나 성자는 하늘 앞에 종의 입장에 있던 자들을 아들의 입장으로 회복시키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2000년 동안 이루려고 온 것이었다. 그리고 아들의 몸이며, 그 시대 땅의 구원자인 나사렛 예수를 통해 역사했다.

그 시대에 누구든지 아들의 육인 예수의 말을 듣고 나 성자를 믿고 하나님을 믿은 자는 종의 몸에서 자유롭게 되어 아들의 권세를 받아, 자녀급으로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으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며 살았다. 이것이 ‘자녀급 차원의 창조 목적’이었다.

그러나 ‘자녀급 차원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목적의 뜻이 아니다. 고로 하나님은 ‘근본의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신약 2000년이 끝나고, 다시 나 성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 나 성자는 아들이 아닌 ‘신랑’으로 땅에 재림하여, 나를 사랑하여 신부로서 온전히 예비된 자를 나의 분체로, 나의 육으로 삼고 땅에서 이루는 창조 목적을 이루러 온 것이다.

재림 때 나의 육이 되는 자는 말만 신부가 아닌, 마치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여 몸도 마음도 모든 것을 다 주듯 하늘 앞에 다 준 자로서, 땅은 ‘여자 입장’이요 하늘은 ‘남자 입장’임을 깨닫고, 인간의 사랑의 대상체는 하나님과 나 성자임을 깨달은 자다. 그리고 그 조건을 실제로 세운 자다. 나는 그를 재림시대 나의 분체로, 나의 육으로 삼고 땅에서 창조 목적을 이루러 왔다. 이것이 <육적 휴거 부활 역사>다.

땅에서 너희 육신이 재림시대 나의 분체를 맞아 그를 통해 시대 말씀을 듣고, 마치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만을 위해 살고 그만 섬기고 위하고 사랑하며 오직 그 뜻을 펴듯 그렇게 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신부로서 이룬 자다. 그 영도 육과 같이 변화되어 신부로서 <육적 창조 목적>을 이루었으니, 그 영과 육은 함께 <육신 휴거>를 한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육을 창조하신 <육적 창조 목적>을 이루게 된다.

나 성자는 신이니 육신을 가진 나의 분체, 곧 내가 신부로 삼은 자를 통해서 나의 말을 전하고, 나의 뜻을 전하고, 사랑해 주며, 육적으로 영적으로 키워 준 것이다.

먼저 육 있는 자들의 <육적 휴거>가 끝나고, 이어서 천사장이 나팔 불고 나 성자가 본체의 영으로 와서 신부로 예비된 영들을 하늘 공중으로 휴거시킨다. 그리고 천국으로 데려가서 1000년 동안 혼인 잔치를 하고, 혼인 잔치가 끝난 후에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나 성자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 영원히 사랑하며 살게 한다. 고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영을 창조하신 <영적 창조 목적>을 이룬다.

★ 과학적으로 인간들이 계산하는 대로 계산하면, 우주와 지구와 천지가 만들어지는 데 137억 년이 걸렸다. 이렇게 긴 세월이 흐른 후에, 이제 근본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시대가 왔다. 지금이 그때다. 지금은 <육적 창조 목적>을 이루며 <영적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마지막으로 너희를 신부로 완성하는 마지막 때다. 이때 너희가 진실한 하나님 사랑으

로 마음을 다해 진실로 창조 목적을 이루기를 갈망하면서 행함으로 창조 목적을 이뤄야 된다. 그래야 너희 영이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나 성자가 원하는 것을 해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나 성자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된다.

★ 창조 목적을 위해서 사는 자, 나 성자가 제립한 목적을 위해서 사는 자만이 이 시대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게 된다. 이들은 그 어떤 일이라도 나 성자가 돕고 함께한다.

★ 목적은 ‘오직 사랑’이다. 신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신과 함께 사는 육과 영의 삶이다. 이보다 더 큰 인간을 향한 신의 계획은 없다. 이 안에 구원도, 축복도, 이상의 삶도, 믿음도, 화평도, 인생이 원하는 것들도 다 들어 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나 성자를 사랑하는 것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다.

그래서 나 성자가 신약시대 나사렛 예수의 입을 통해서 말하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여라(마 22:36-39).” 한 것이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이룬 자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나 성자를 전능자, 두려운 자, 천왕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보아라. 나 성자를 구세주로만 보지 말고 사랑의 왕 중의 왕, 사랑의 메시아, 영원한 신랑으로 보아라. 삼위일체는 전능하신 신이지만 사랑의 본체로서 오직 ‘사랑’만이 통한다. 사랑하면 허다한 죄도 다 용서한다.

물질·명예·TV·컴퓨터·자연·돌·나무·물·각종 예술·놀이 문화·자기가 좋아하는 것·관광 등 수백 가지 다른 것에 자기 사랑을 다 쓰면서 삼위일체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다 공허와 허무로 끝난다. / 하나님과 성령님과 나 성자를 믿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영계를 왕래해도 삼위일체를 절대 사랑하지 않고 행하면 다 필요 없다. 입만 내게서 놓고, 몸과 머리로는 세상을 사랑하며 살면 1000년

동안 나를 믿어도 나와 상관없다.

★ 너희는 이 시대 나의 분체와 같이 변하지 말고,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나 성자의 손도 놓지 말고, 마음도 떨어지지 말고, 사랑하며 살라. 근본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때가 왔다. 구원역사 6000년 만에 온 기회다. 천지와 인간을 창조한 이후 137억 년 만에 온 기회다. 이 시대 사람들이 못 하면, 이 시대를 알고 배우고 따르는 너희 책임이다!

자신감을 가지고 하여라. 사람이 자신감을 가지고 기분 좋게 해야 월등하게 잘하게 된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 놓고 자신이 없어서 늘 불안해하고 초조해한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나 성자와 함께 창조 목적을 이루면서 한 차를 타고 가는데도 마음은 불안해하고 자신감을 잃고 간다. 자신감을 가지고 하여라. 기뻐하며 가라. 마음 담대하게 가라. 하나님도 나 성자도 네 편이다.

신부로서 근본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시대가 와서 나 성자가 이 시대 사망자의 육신을 쓰고 나타나 창조 목적을 말해 주었는데도 그 목적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후회하게 된다. / 또한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온 인류의 구원자인 나 성자가 사랑의 목적을 두고 천지와 인간을 ‘사랑’으로 창조했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자기 존재 목적만을 위해 세상에서 가치 없이 허무하게 쓰고 마는 자들도 영원히 후회한다. / 꼭 해야 될 마지막 기회의 때다. 하면 다 한다.

너희 눈에 보이는 나의 분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나 성자에 대해 배우고, 절대 믿고 사랑하여라. 나 성자가 나의 분체를 통해서 영광도 받고, 이 시대 창조 목적을 이루며, 육적 휴거 역사와 영적 휴거 역사를 행한다. 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자연도 그 행위대로 갚아 주면서 대하고, 하늘도 그 행위대로 갚아 주면서 대한다.

나 성자가 이 시대에 쓰는 자를 미워하고 억울하게 하면, 역사에 없는 형벌을 시대가 받게 된다. 엘리야 시대 때, 선지자인 엘리야만 괴롭혔

어도 그 땅 전체가 3년 6개월 동안 가뭄의 형벌을 받았다. 이 시대 한 나라도 104년 만에 대가뭄이 찾아왔으니 큰 고통이 아니냐.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이 우연이겠느냐. 너희가 비가 오게 할 수 있느냐. 인간은 만물에게 명하지 못한다. 이는 모두 그 시대가 하늘이 보낸 자를 대하는 대로, 전능자 하나님과 나 성자를 대하는 대로 자연도 그대로 갚아 주며 대하는 것이다. 그래도 땅의 구원자는 늘 기도하며 비가 오게 해 달라고 간구한다.

누구든지 하늘의 사람을 악으로 대하는 자는 그에게서 악이 떠나지 않고, 그 영은 결국 악의 세계로 가게 된다. 사울 왕도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거스르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윗을 괴롭히니, 그에게서 악신과 악이 떠나지 않았다. 결국 전능자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돕지 않으니,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괴로워서 끝에 가서 스스로 자살하지 않았느냐.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로서 그로 인하여 그 육과 영이 사망에 거하게 된다.

오직 창조 목적을 꼭 이루어라. 사랑의 세계를 이루어라. 이것이 마지막 기회의 축복이다.

나 성자가 신랑으로 너희에게 왔으니, 너희가 신부의 신앙을 하고 신부의 사랑을 해야 창조 목적을 이루어 너희 육도 영도 사랑의 목적을 이루게 된다. 그리하여 너희 육도 땅에서 휴거의 삶을 살고 너희 영도 하늘 공중으로 휴거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라고 마지막 기회를 말한 전능자 성자다. 살렘!